

제 136호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지난주에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편지내용과 제 답변을 소개합니다. "새시대 교수법" 전자주간지를 매주 읽으면서 늘 느껴오던 생각을 적어봅니다. 조교수님의 글을 읽다보며 내가 강의에 대한 열정을 얼마큼 잃어버렸는가를 알게됩니다. "새시대 교수법"은 제가 열의에 가득 차 있던 신입교수 시절에는 가능했겠으나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교수는 연구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신청서 쓰라 연구보고서 쓰라 학기 내내 분주합니다. 연구비를 따온 후에도 쓸데없는 잡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강의부담은 얼마나 많은지... 더욱이 연줄을 댄답시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다진답시고 밤늦도록 술을 마시다 보면 다음 날 강의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마저 종종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의에 대한 열정을 잃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닙니까? 저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달력을 맨 먼저 보게 됩니다. 제 강의 시간이 공휴일에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죄송합니다. "새시대 교수법"이 매주 교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쌓여 있는데 지난 호에 학생 동기유발마저 "내가 할 일이라고 믿는다"라는 글은 받으셨으니 말입니다. 옆친 데 덮친 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강의를 잘하라는 메시지가 불가능한 요구로 들렸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시대 교수법"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요구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비합리적인 요구가 성사되기를 바라는 짓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제게 한국의 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새시대 교수법"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명언이 생각납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도록 바꾸고, 비합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 맞도록 바꾸려 한다. 고로, 세상의 모든 발전은 비합리적인 사람에게 달렸다. -- 버나드 쇼 (저자, 노벨 수상자, 1856-1950)"

다행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새시대 교수법"을, 불편한 딜레마를 느끼게 만드는 "새시대 교수법"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는 교수님께서 아직 희망을 저버리지 않으셨는가 봅니다. 마음이 이미 차갑게 굳어졌다면 "새시대 교수법"을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날려보냈을 것입니다. 이것저것 시시콜콜 잔소리하는 것 같아 지겨운 마당에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면 보기조차 싫을 테니까요.

정하실 때입니다. 억지로라도 하기 싫은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렵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를. 교수님께서 편지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한다"고 하십니다. 과연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교수님께서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해야한다고 하는가요. 지금 다시 선택해보십시오. 이 선택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조벽, 2001